



생동감있는 전문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NO 해 첫 편집위원회에서는 우리 연구회의 회지에 대한 작은 반성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회지, '위성통신과 우주산업'이 2년이라는 길지 않은 세월에도 여러 회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국내 위성통신과 우주산업에 관한 변변한 전문지 하나 없었던 탓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의 고마운 관심에 걸맞게 유익하고 읽기에 즐거운 책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해묵은 지난 회지까지 찾아보려는 관계자 여러분들이 늘 줄을 잇는 것을 보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는 자부해도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읽기에 즐거운가 하는 데는 아무래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논문 위주의 안일한 기획과 편집에 기울이는 노력이 적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통우연 회지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사적인 정보와 읽을거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원사들의 동정에 보다 역동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전체적인 편집에 있어 너무 딱딱합니다. 보다 읽기 쉽고 새롭게 꾸며야 하겠습니까.

물론, 변화를 꾸미는 일이란 늘 조심스럽습니다. 변화는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늘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닐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95년에 발행되는 3권은 조금이지만 알차게 변화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눈에 알아보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는, 보다 풍성해진 <시사초점>과 정부주도적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위성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의 정책 사안에 대한 방향과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앞으로 통우연 회지는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변화하는, 생동감 넘치는 전문지로 거듭 태어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충고를 바랍니다.

편집위원장 임 춘 식